

새로 나온 책

▲ 날져무면 보이는 별(오현의 지음)=승려시인의 여섯 번째 작품집. 오현 성우스님을 비롯해 지인 해관 정운 해일 로담 해동스님 등 14명의 승려 시인이 동인으로 참석해 122편



의 작품을 실었다. 승려시인회장 진관스님은 발간사에서 문학을 생명의 혼이며, 역사를 창조하는 꿈이라며 승려시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기대했다. 호반, 3천원.

▲ 물고의 효 유교의 효(미치타 히데오 지음)=불교전반의 효 사상과 유교의 윤리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리했다. '효를 실천한 불교경전' '중국에서 성립한 효경전' '불교의 효도론' 등을 통해 출가가 곧 불효라는 관념을 부수고 출가가 효행 가운데 으뜸임을 밝히고 있다. 목장배 옮김, 불교시대사, 6천원.



▲ 신타라 왕자(조나단 랜디우 지음)=어린이들을 위한 부처님 일대기.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신타라 왕자의 성장과정과 세상에 대한 사랑,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차정인씨의 그림을 곁들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태경 옮김, 해인사출판부, 3천5백원.

▲ 중국불교철학사(심재용 엮음)=중국불교의 역사적 변화와 교리의 전개과정을 중국 불교의 전적 가운데 철학적인 서술을 종파별로 묶어 번역, 정리했다. 중국불교가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通時的)으로 따르면서, 동시에 주요 종파의 교리체계를 살펴 기본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방법을 택했다. 철학과학실사, 8천원.

「미얀마 72일」 「수행합시다」 「새불교 원초…」등

위빠사나 지침서 출간 붐

정성운 기자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위빠사나 입문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경전의 번역, 출간이 활발하다. <수행합시다> 「미얀마 72일-위빠사나 수행기」 <새불교 원초 불교> 등이 최근에 출판된 이들 책으로, 「미얀마…」의 경우 불서로서는 드물게 6개월만에 3판을 찍는 등 독자들의 높은 관심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은 공안의 탐구에 의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간화선이다. 이를 전통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 여전히 염불 간경 등 여타의 수행법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위빠사나에 대한 입문서 및 부처님의 수행 지침을 담은 「대엄처경」 등의 번역, 출간은 남방불교를 '소승'이라 해서 가벼이 여기는 한국불교의 진풍에 비추어본다면, 수행법의 새흐름을 형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미얀마 72일」(논정)은 현오스님(경원 보덕사)이 지난 해 10월 26일부터 72일동안 미얀마 마하시 명상센터에서 수행하며 쓴 수행일기를 모은 것이다. 미얀마 수도원의 특징은 수행중에 일어나는 변화와 느낌을 문고 이에 대한 수행방법을 제시하는 콘스납과의 인터뷰이다. "여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집중을 하였으며, 잘 되고 있는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눈은 전방 1미터 앞을 보고, 다리를 교차해서 가장 편안하게 앉고, 허리의 척추뼈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랫배에 마음을 두고 배가 호흡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현오스님은 위빠사나를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감촉 느낌 마음 법, 이 네가지 대상에 대한 마음집중 또는 알아차림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한국선이나 위빠사나는 사람이 문제인지 수행이 다를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한다.

위빠사나의 특징은 기존의 수행법과는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수행이 특정한 정유물이 되지 않고 누구나 신심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수행합시다>(현을 지음, 목우)는 위빠사나 실천지도 경험 책을 모은 것이다. 책 속

을 통해 남방불교 수행방식의 요체와 명상수행의 여러 단계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부처님께서 위빠사나

호진스님(동국대교수·불교학)도 "현재의 한국불교는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받아

들이는 것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들 책 외에도 90년대 이후에 나온 「남방의 선지식」(법보출판사), 「명상비법」(일지사) <마하무드라의 노래> <불교를 찾아서> <위빠사나>(불광) 등이 불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처님 당시 수행법 알기 쉽게 풀이

의 한 묶음인 「5일동안의 수행」에서 호흡에 대한 관찰과 수행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신체부위에 대한 관찰까지 초보적인 수행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부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수행법을 가르친 「대엄처경」과 「칼리마경」을 번역해 실었다.

<새불교 원초 불교·수행편(1)>에서는 '마음 길들이기' 현대인과 불교명상' 등 10편의 글



를 통해 남방불교 수행방식의 요체와 명상수행의 여러 단계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부처님께서 위빠사나

회제의 책

가상 칠조가 세상에 던지는 깨달음의 잠설

칠조어론/박상용 지음

지난 75년 우리 문단에서는 드물게 무거운 철학적 주제를 다룬 <죽음의 한 연구>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던 케나다 거주 작가 박상용(朴相龍)씨가 장편 소설 「칠조어론」(七祖語論·전 4권)을 펴냈다.

우선 「칠조」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불교의 선행은 초조달마로부터 해가로 이어지다 육조혜능에 이르러 의발을 전수치 않음으로 단절된 것이 아닌가. 이 공백은 박상용이 생전의 김현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풀이된다.

"여전히 나의 믿음은, 불자며, 보살들이며, 신들은 우리를 인간을 입어 내려와야 하며, 칠조, 팔조, 구조 들도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나의 그리고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는, 자신을 맨 먼저 포함



박상용 씨

하여, 어떻게 우리 세상을 도울 수 있는가, 그것에만 있다. 왜냐하면, 생로병사불, 내가 불쌍했던 것이다."

또 김현의 해설을 빌리면서, 「칠조는 완성자로서의 칠조이다. 그 칠조의 철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말한대로 완전수이다. 그의 칠조는 그러니까 유미경의 주인공에 가깝다. 그는 돈오하였으나, 그의 육신은 중



생의 육신이다." 세상을 돕기 위해 촛불승으로 등장하는 칠조는 근엄한 법문보다는 온갖 잠설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준다. 이렇다면 '같은 육신동물끼리 서로 해치는 수가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

명사추천 불서100선

님의 침묵

보살정신·만다라의 장엄펼쳐



김장호 <사인·문인협회 이사>

여 그런 슬픔들은 어느새 부처님의 48종상안에 가둬놓아 버렸다. 뿐인가, 공경스런 여성화법으로 말꼬리가 연이어 일체 합리적인 논리를 파괴해가면서 펼쳐보여 주는 일대 만다라의 장엄은 어느 경전도 따를 바가 아니다. 그것은 비단 님에 대한 사랑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알수 없어요'에서 보자시피 자연이 지니는 신비감이 사람의 희망과 함께 어우러져 독자들 사로잡아서는 한용운의 신앙과의 대결에 함께 동참하게 한다.

따라서 「님의 침묵」은 님에 대한 애절한 하소연 일방으로 시종하는 찬송가 아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배를 저미는 수행자 자신의 고행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난다. '나뭇배와 행인'이 그것이다.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기다'려서 겨우 행인들을 피안 세계로 인도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나를 짓밟'다 뿐인가 '풀아보지도 않고' 가버린다.

이것을 중생제도의 예사로운 사례로만 보기는 어렵다. 내가 제도된 연후에 중생들을 인도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 할 때, 나뭇배의 경우는 오히려 '내가 어찌 제도되지 않았으니 남부터 제도해야 한다'(自未度 度他人)라는 그 보살정신이 무척이나 때문이다. 사실 불교의 자비란 박애(Mercy)나 자선(Charity)이니 하는 기독교적 인유에하고는 판이한 차원에 놓인 정신이니, 이 시야말로 그

사랑·희망의 노래...행인을 피안으로 인도

1926년 5월, 시집 '님의 침묵'이 처음 서을 종로거리 애동서관의 진열대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연에서간집인 줄 알고 사갔다 한다. 자유연애를 구가하던 시절이라, 연애인지 문명이 한참 팔려나갔던 어간의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태가 망발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님의 침묵」은 88편 전편이 사랑의 시, 경외의 시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첫머리에 실린 시집과 같은 제목의 시 한 편만 두고 보더라도 그것은 한 여인의 님에 대한 애상에 젖은 한탄으로 가득하여, 이 시집을 축조가(祝詞) 또는 비천상(飛天像)으로 보는 견해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그 시를 읽고 고개를 들면 그 순간 부처님의 장엄한 미소가 눈앞에 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곧 이 시집의 핵심이 된다. 이별을 한탄하며 슬픔을 되뇌인다고는 하지만, 지고지순한 품에 안긴 기쁨이 절절하

자신을 내어던져 중생을 구하는(捨身度衆)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속타인교수도 이렇게 말한다. "유림의 많은 진지한 이들이 그들의 회의 때문에 침울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들 때 한용운은 거기서부터 부상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회의와 신앙과 사랑이 미묘하게 얽혀들어 그 결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니, '나뭇배와 행인'을 읽으면 그가 그런 무력감에 침전하기보다는 행복에 대한 기대와 활력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소멸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님의 침묵은 님의 탓이 아니다. 내가 정진하지 않는 탓이다. 신앙이란 사실 앞서 북을 비는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끝 한번 절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며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서는 가닿지 못할 경지라는 진리를 「님의 침묵」은 망울망울 꽃방울을 터뜨려가며 선연하게 비추고 있다.

연말불서코너 설치 책방 '여시아문'

불교전문책방 '여시아문'은 연말연시 특화코너를 베스트 및 스테디셀러, 어린이불서, 신간코너, 선물을 연하불서코너를 설치했다.

연하불서코너에서 대원사의 「해인사」 「홍도사」 「송광사」 등 '빛깔있는 책'을 구입하면 우편발송용 봉투와 연하장을 증정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무소유	법정	법우사
2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창작과비평사
3	한글이환경	고익진	동국대출판부
4	나기르쿠나	갈뎡배하나	장경각
5	자네, 도가 된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6	이야기 한국불교사	김현준	효림
7	재미있는 인과이어기	임일용	여래
8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임동	우리출판사
9	화엄경(전12권)	부비역	민족사
10	전수경	부비역	불일출판사

구입문의: (02)737-0695

꿈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어린이 불교성전」

「어린이 불교성전」으로 아이들에게 불심을.....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밝고 맑은 모습을 볼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인격형성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어린이 불교성전'은 우리 믿음의 뿌리요 불교의 미래인 어린불자들에게 바른 불교문화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경전입니다.



어린이 불교성전

큰몸을 하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큰몸을 둘,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큰몸을 셋,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큰몸을 넷, 여섯가지 바른 삶 큰몸을 다섯, 다듬어 가꾼 믿음



- 어린이 불자들의 필독서
- 어린이 법회용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정가: 9,000원

도서출판 단이슬

책 구입처 단이슬 • 267·8101 법륜사 • 733·5322, 723·0423 총판·운주사 • 720·9372~3, 735·9170 도서출판 「단이슬」은 어린이 포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려 합니다.